

노인 이·미용비 제도 개선

진안군, 면 지역 의무 사용제 폐지하기로

진안군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노인 이·미용비 지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군은 현재 이·미용비 지원제도는 이·미용업소가 있는 면 지역 주민의 경우 연간 지급되는 이·미용권(6매)의 3분의 2 이상을 주소지 면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해 읍에 따라 진안읍에 위치한 이·미용업주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이에 진안군은 지난 2월 이·미용업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제한 없이 사용가능한 이·미용권 2매를 3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

다. 올해 3월에서 5월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 이·미용업소가 있는 면 지역에 배부된 미용권의 63%가 면 소재 미용업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 지역 의무사용제를 통해 달성하려던 면 소재 이·미용업소 이용률(67%)에 근접한 수치여서 굳이 제도적으로 의무사용을 강제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달 26일 이·미용업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면 지역 의무 사용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가 개정·시행되는 올 10월부

터는 70세 이상 주민은 1인당 연간 6매(1매당 1만원 상당)의 이·미용권을 가지고 진안군 소재 어느 이·미용업소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면 지역 의무사용제는 읍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지역 상권을 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찬·반 양론이 대립하면서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이·미용업주들에게 시범 운영을 통한 제도개선 검토를 제안했던 김명기 사회복지과장은 "지역 내 주민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정책과 행정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함에 있어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무주, 걷고 싶은 명품 산책로 조성

오산~당산 간 산책로 포토존 만들어

무주군이 무주읍 오산~당산 간 산책로에 포토존(트리아트) 조성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반딧불이 등을 표현한 기존 조형물들과도 잘 어울려 '걷고 싶은 명품 산책로' 정착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포토존은 바다(평면)에 입체감이 드러나도록 그림을 그려 완성한 것으로 장소에 따라 기본 5m*2m 규모로 건강생활실천과 무주의 자연, 그리고 문화관광을 주 내용으로 담았다.

무주군에 따르면 산책로(총 2km) 곳곳에는 담배와 야령 등을 표현한 금연·건강다짐과 래프팅, 계곡 등을 표현한 10점의 그림들이 그려졌다.

주민들은 "날마다 이 길을 걷고 있는데 볼거리가 더해지니까 웃음 일도 많아졌다"라며 "사진 찍기 싫어하던 애들도 재미있어 하고 이제는 운동하러가자고 안 해도

가족들이 먼저 길을 나선다"라고 전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이혜자 건강증진팀장은 "건강행태 조사 결과 만성질환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운동실천 행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우리 군에서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에 좋은 걷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산책로 포토존을 구상했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올해 산책로 포토존 조성 외에도 만보간기를 비롯한 생활체육공원 걷기표지판 설치, 걷기요령 교육 및 주요산책로 걷기, 이동건강체합장 운영, 건강리더와 함께 하는 생활터 걷기 사업을 추진하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조례"를 제정해 주민 역량강화와 건강증진활동을 증진해 나갈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NH농협 장수군지부

장수군에 양파 2톤 지정 기탁

NH농협 장수군지부(지부장 김태호)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양파 소비촉진 및 지역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관내에서 생산된 양파 2톤(2000kg)을 구매해 경로당 등 불우이웃돕기 관련 장수군에 지정 기탁했다.

최근 양파 작황호조(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과 판로확보에 어려운 상황에서 관내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장수군 농협 임직원(군지부 및 장수·장계농협, 무진장축협(장수·장계) 200여명은 1인당 20kg 기준 2망씩 총 8톤(8000kg) 가량을 구매하는 등 양파 소비촉진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 농축협 임직원 들은 양파 소비촉진을 위한 "범 농협 양파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양파의 소비확대와 수급조절 등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호 농협 장수군지부장 및 관내 농축협 임직원들은 많은 분들이양파를 드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양파 팔아주기를 통해 가격 하락으로 고심에 빠져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손길이 되기를 희망 한다며, 각 기관·단체 임직원들도 양파 소비촉진 운동에 다함께 참여 하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팀을 구성한 무주군이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에 나섰다.

무주군,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나선다

위험구역 특별관리·드론 점검·안전요원 41명 배치·심장제세동기 비치 등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팀을 구성한 무주군이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에 나섰다. 과거 물놀이 인명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10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각각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놀이 안전요원 41명을 고정 배치할 예정으로 지역자율방재단과 수난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재난안전 네트워크 회원과 마을이장 등도 안전관리 인력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28일 무진장소방소

와 함께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습, 물놀이 안전장비 사용요령, 물놀이 사고 시 대처요령 등을 교육했다. 또 위험구역 10곳 전체에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심장제세동기(AED)를 비치하고 주말마다 드론을 띄워 상공에서도 현장을 확인하며 민일의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박태용 안전민방위 팀장은 "물놀이 안전관리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인력풀을 가동해 단 한 명의 사망자는 물론, 단 1건의 안

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28일 안전요원 발대식과 함께 민방의 준비를 갖추고 오는 8월 31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안전사고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재해 문자 및 전광판,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교육기관을 비롯한 래프팅 및 숙박시설, 음식점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계획을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양파 팔아주기 행사 개최

장수군은 과잉생산으로 인한 양파의 가격하락과 시장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농가와 공동 상생을 위하여 '양파 팔아주기 운동'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장수군청 광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장영수 군수와 농협, 의회, 유관기관장, 지역 사회단체 대표, 주민 등 관계자 600여명이 참여해 양파 621망 (620만원)을 구매, 전담식 행사를 진행했다.

군은 양파면적의 90% 정도를 계통출하 함으로써 농가의 판로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파 종자재 지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통한 양파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가격안정을 위해 힘써왔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행사를 통하여 행정 및 기관들의 작은 노력이 양파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최근 반복되는 양파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지역농협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붕어 치어 78만여 마리 방류

진안군은 최근 용담호와 읍·면 공공용수면 18개소에 내수면 수역 특성에 적합한 건강한 붕어 치어 78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붕어는 대표적 토속 어류로 치어 크기는 전장 4cm 이상이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합격한 건강한 종자다.

이날 방류에는 관계기관은 물론, 진안군어업계연합회 어업계원 및 주민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방류수면에 자율적인 불법조업 감시 등을 통해 수산자원이 증식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은 수산생태계 활성화 및 어족 자원 증대를 위해 수산종자관리사업에 3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지난 6월 방류한 치어 1만4천여 마리 방류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용담호와 공공용수면에 동자개, 쏘가리, 자라, 다슬기를 순차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외래어종 퇴치 및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단속도 강화하여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www.jjmaeil.com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영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